

KITA, '남가주에서 소득세 줄이는 방법' 주제 세미나

남가주한국기업협회(회장 신현수, KITA)가 '남가주에서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주제로 3월 정기 세미나를 연다.

이 행사는 24일 화상영 줌을 통해 열린다.

세미나 참가 등

록은 'https://us06web.zoom.us/meeting/register/tZAvd--orzoqG9VWwWig6C8REnlFqQEDGQ_eY'에서 할 수 있다. 등록자에게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통보해 준다.

한편 KITA는 오는 4월 9일 리버사이드의 오크 퀴리 골프 클럽(7151 Sierra Ave., Riverside, CA 92509)에서 정규회원사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한다. KITA 관계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는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 지사들의 편의 도모와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1980년대 초에 설립 되었으며 1996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주류사회 인사들과 교류로 2008년 한미 FTA 협정 체결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2012년 협정 발효 이후에도 FTA의 효율적 이용과 확대를 위한 계몽 사업을 전개하는 등 한미간의 통상 확대와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매월 정기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매년 한인 학생(중고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여는 등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협회의 이름을 한국상사지사협의회에서 남가주한국기업협회로 변경했다.

문의: info@kita.com

FACE·민족학교, 무료 주택 관련 상담 서비스

비영리단체 FACE(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3550 Wilshire Blvd # 1124, LA, CA 90010)와 민족학교 (Korean Resource Center, 900 Crenshaw Blvd. #B, LA, CA 90019)가 한국어 무료 주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국(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전역 76개의 기관에 연방주택 및 도시주택개발부에서 인증한 217명의 상담사들을 배치해 제공함에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했거나 모기를 채납하는 등 주택 관련 문제로 생활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관련 구호 프로그램 종료와 퇴거

유에 기간 만료로 인해 주택 문제로 인한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국 에릭 존슨(Eric Johnson)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올해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미납된 렌트비가 약 33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존슨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그 동안 영어가 모국어 아 아닌 많은 주민들은 주택 문제 해결 관련 정보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며 "이를 위해 일부 주택 상담 기관에 한국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가 가능한 상담사들을 배치했다." 고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이 서비스는 주택 구매 정보를 비롯해 주택연금 관련 정보 등 주택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무료 주택 상담 기관 리스트는 www.calhfa.ca.gov/community/nms/resource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안 복지센터,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 코리안복지센터 김광호(왼쪽) 소장, 최요셉 코디네이터. 사진=코리안복지센터

'코리안 복지센터' (소장 김광호,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 CA 90621)가 이달 26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

무료 신청 대행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무료 신청 자격은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지문 채취 비용 포함 725달러), 캘리포니아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 동안의 거주지 주소와 직장 정보 (학생인 경우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법 행위 관련 서류(교통티켓 포함), 무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류(세금보고 관련, 푸드스탬프, 메디칼 등)이다.

코리안복지센터 측은 "공적 부조를 받았거나 받고 있어도 시민권 신청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서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까지 13-14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문의 및 예약: (714) 449-1125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6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